한국언론학보
2017년 61권 5호 204~240쪽
https://doi.org/10.20879/kjjcs.2017.61.5.007
http://www.comm.or.kr

지식 습득인가 정파적 해석인가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정파적 이슈에 대한 태도 극화에 미치는 영향*

이나연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조윤정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특정 이슈에 대한 태도 극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식과 해석의 역할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의 성인 1,032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최순실 국정 개입, 블랙리스트 작성, JTBC의 태블릿PC보도 등 세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한 개인의 지식이 어느 수준인지와 해당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측정한 뒤, 각각의 이슈에 대한 태도 극화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의 정파적 미디어 이용은 정파적 이슈에 대한 태도 극화와 긍정적 관계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각각의 이슈에 대한 정파적 해석은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정파적 미디어 이용은 정파적 해석을 강화, 결과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태도 극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치지식의 수준은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와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해당 이슈에 대한 지식 습득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정파적 이슈에 대한 지식 습득과 태도 극화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선택적인 지식 습득보다는 왜곡된 정보 해석을 통해 태도 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제시한다.

핵심어: 정파적 미디어 이용, 지식 습득, 정파적 해석, 정파적 이슈, 태도 극화

---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2926051).

** larosa@sungshin.ac.kr, 제1저자
*** choyj@sungshin.ac.kr, 교신저자

1. 서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 미디어는 시민들에게 주어진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다시 말해,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다양한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뉴스 미디어로부터 제공받는다는 것이다(Barabas & Jerit, 2012).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다매체 환경에서 언론은 정파성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일치하는 매체(혹은 정보)에만 노출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Iyengar & Hahn, 2009; Stroud, 2007, 2008, 2010). 이른바 '정파적 선택적 노출(partisan selective exposure)'은 시민들이 자신의 기존 믿음과 일치하는 뉴스 혹은 콘텐츠를 선호하는 현상(Klapper, 1960; Stroud, 2007, 2008, 2010)으로 미디어 연구에서는 정파적 선택적 노출이 민주 사회에 부정적이라고 인식해왔다.[1] 시민들이 동질적인 정보나 의견에만 노출되면,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타인에 대한 관용의 수준이 낮아지며(Mutz, 2002b), 또한 자신의 기존 입장이 강화되는 태도의 극화(polarization)로 이어져(Jones, 2002; Slater, 2007; Stroud, 2010)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Sunstein, 2001).

정파적 선택적 노출이 뉴미디어 환경에서 특히 부각된 이유는 뉴스의 생산과 소비자의 뉴스 소비 방식이 전통적 미디어 환경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생산자 측면의 경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한 매체가 증가하면서 점차 "대중"이 아닌 "한정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파적 매체가 등장하였으며(Stroud, 2011), 소비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개인들의 뉴스 소비에서 선택권을 강화했다. 첫 번째 범주와 관련, 국내에서도 2011년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일부 신문사들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에 진출하는 등 다매체 시대가 시작되었다. 또한 이들 종편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편향성과 정파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박지영 · 김예란 · 손병우, 2014; 원희영 · 윤석민, 2015) 정파성이 높은 집단에서 정파성이 높은 뉴스나 프로그램을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일부 확인되었다(금희조 · 조재호, 2015). 해외에서도 라디오 토크쇼나 폭스 뉴스

1) 선택적인 노출은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Mutz, 2002a).

(Fox News)처럼 정파성을 앞세운 매체가 등장한 이후 정파적인 뉴스 이용에 주목한 연구들이 적지 않다(Jones, 2002; Owen, 1997; Slater, 2007; Stroud, 2008, 2010).

뉴스 수용자 측면에서도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등 뉴미디어 기술이 개인의 뉴스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더욱더 '생각이 비슷한(like minded)' 매체나 뉴스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뉴미디어 기술이 정파적 뉴스 소비를 촉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에서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보를 추구할 수 있어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한규섭 · 박주용 · 이덕재 · 이혜림, 2013; 황유선, 2013; Garrett, 2009; Knobloch-Westerwick & Meng, 2009).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부 연구에서는 개인이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성향과 다른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Papacharissi, 2002). 즉,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연하게 자신과 다른 견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Brundidge, 2010). 더 나아가, 최근에는 뉴미디어 환경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특성 차이에 따른 선택적 노출을 분석하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양승찬 · 이미나, 2013; 황용석 · 양승찬 · 이준웅 · 이원태, 2011). 즉, 미디어의 기술적 특성뿐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미디어의 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의 정파성과 정파적 선택적 노출의 관계(Stroud, 2007, 2008, 2010), 혹은 정파적 뉴스 매체 이용과 태도 극화와의 관계(Jones, 2002; Slater, 2007; Stroud, 2010) 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으나 정파적 뉴스 이용이 왜 태도의 극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Kim, 2015). 즉, 보수 편향적인 미디어를 이용하는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가 더 보수화되는 이유는, 보수적 매체를 이용함에 따라 보수에 불리한 이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지(보수적 매체가 해당 이슈를 다루지 않거나 혹은 해당 이슈를 다루더라도 개인이 이를 선택적으로 회피한 결과로), 혹은 해당 지식을 충분히 알더라도 이를 보수에 유리하도록 해석하기 때문인지에 직접적으로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Mutz,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정파적 미디어 이용, 그리고 태도 극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식 습득과 해석의 역할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일부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선행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정파적 이슈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유리한 정보를 불리한 정보에 비해 더 잘 습득하는 "정파적 지식 습득(partisan knowledge learning)"이 정치인이나 공적 이슈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Jerit & Barabas, 2012) 정파적 사안에 대한 사실(facts)을 자신의 기존 태도나 견해를 유지하기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정파적 해석"을 통해 공적 이슈에 대

한 태도가 극화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Gaines, Kuklinski, Quirk, Peyton, & Verkuilen, 2007; Mutz, 2006). 비록 이러한 선행연구는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의 관계에는 주목하지 않았지만,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태도 극화에 이르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정파적 이슈에 대한 태도 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들의 지식 습득과 정파성에 유리한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제까지 개인의 성향, 정파적 미디어의 이용, 지식 습득과 해석, 그리고 태도의 극화라는 과정을 동시에 점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이에 따른 태도 극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만큼, 우선 1) 개인의 정파적 성향은 정파적 미디어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2)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개인의 태도 극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개인의 태도 극화의 관계에서 지식 습득과 정파적 해석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매체 환경에서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논쟁적 이슈에 대한 지식 습득과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함으로써, 태도 극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논의

1) 정파적 성향과 선택적 미디어 이용

뉴미디어 시대의 뉴스 매체나 정보의 이용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현상 중 하나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 혹은 선택적 노출 과정이다.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더 다양한 정보에 접할 것이란 기대(Papacharissi, 2002)와 달리, 오히려 특정 정보에 대한 선택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Garrett, 2009). 일반적으로 선택적 노출이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보보다 지지하는 정보를 선호하는 현상"(Sears & Freedman, 1967, p. 203)이라고 정의되며, 정치적 맥락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선택한다는 생각"(Stroud, 2010, p. 556)으로 여겨진다. 즉, 일반적으로 정파적 선택적 노출이란 정치적 이슈 혹은 정치 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 개인의 기존 입장을 지지하는 정보를 추구하는 행위와 기존 입장에 배치되는 정보를 회피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Johnson, Bichard, & Zhang, 2009).

미디어 이용에서의 정파적 선택적 노출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돼왔다. 시민

들이 정치적 성향에 맞는 매체 혹은 메시지에만 선택적으로 접한다면, 자신과 다른 의견에 관용적이지 못하고, 새로운 정보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기존의 태도가 강화되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갈등적 이슈에 대해 집단 간 합의에 이르기보다는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Sunstein, 2001). 실제 많은 선행연구는 자신이 선호하는 매체나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 혹은 이와 반대되는 이견 노출이 정치적 지식, 정치 참여, 후보자 평가 등과 같은 정치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져왔다(최윤정 · 이종혁, 2012; Mutz, 2002a, 2002b).

선택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제기되었지만(Stroud, 2011 참조) 일반적으로는 인지부조화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Festinger, 1957)으로 설명되었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접하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에 배치되는 메시지를 회피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일치하는 정보를 추구한다. 같은 맥락에서, 테이버와 로지(Taber & Lodge, 2006)는 자신의 의견에 일치하는 정보를 선택하는 행위를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그리고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불확증편향(disconfirmatory bias)이라고 설명했다. 즉, 테이버와 로지는 선택적 노출을 왜곡된(biased) 정보처리과정으로 여겼으며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때, 기존의 태도와 신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워 왜곡된 정보처리, 즉 선택적 노출을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의 제한적 효과를 주장했던 선택적 노출은 1960년대 이후 학계의 관심에서 멀어졌으나 뉴미디어 환경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즉, 1967년 시어스와 프리드먼(Sears & Freedman, 1967)이 선택적 노출을 입증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방법론 등에서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비판한 뒤, 관련 연구는 급속히 줄었다(Cotton, 1985).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서 미디어 기술은 수용자에게 역사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웠던 뉴스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이와 함께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함에 따라 개인이 성향에 맞는 뉴스를 골라서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에서는 소수의 뉴스 매체가 비교적 동질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뉴스 수용자는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다수의 뉴스 매체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뉴스 수용자는 적극적으로 매체나 뉴스를 선택할 수 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의 선택적 미디어 이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선행연구는 기술적 측면에 주목해,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서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보를 추구할 수 있어 선택적 미디어 이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한규섭 외, 2013; 황유선, 2013; Garrett, 2009; Knobloch-Westerwick & Meng, 2009). 예를 들어, 트위터에서는 팔로잉할 대상을 쉽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트위터에서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더욱 잘 발견된다는 것이다(한규섭 외, 2013).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이용에서 우연하게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Brundidge, 2010). 개인이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의 내용을 모두 알 수 없으며 따라서 특정 정보를 회피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선행연구는 다매체 환경에서 '틈새뉴스(niche news)'로 등장한 정파적 매체의 영향에 주목해왔다. 즉, 전통적인 대중매체들은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뉴스를 제작해 정치적으로도 특정 시각을 대변하기보다는 균형성에 중점을 두었지만, 정파적 매체들은 특정 정파성을 지닌 집단을 목표로 그들의 정파성을 지지하는 뉴스를 생산하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정파적 선택적 노출이 더 쉽다는 것이다(Stroud, 2011). 머츠(Mutz, 2006)는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은 시민들이 쉽게 자신의 성향에 기초해 미디어 노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 224)고 설명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미국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폭스뉴스를 더 선호하며 보다 진보적이라고 알려진 CNN과 NPR를 회피하며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Iyengar & Hahn, 2009). 즉,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미디어를 더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는 개인의 정파성에 따른 정파적 미디어 이용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의 경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의 정파성과 정파적 미디어 이용의 긍정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소수이고, 개인의 정파성과 정파적 미디어 이용의 정적 관계를 전제로 이후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연구가설을 제기한다.

연구가설 1. 미디어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미디어를 그렇지 않은 미디어보다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2) 정파적 미디어 이용의 결과: 태도 극화

뉴미디어 환경에서 개인들이 정파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한다면, 이는 공적 이슈나 공적 인물에 대한 개인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민주사회에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Mutz, 2006; Mutz & Martin, 2001; Slater, 2007; Stroud, 2008, 2010). 이와 관련해, 미디어 연구에

서 정파적 미디어 이용의 결과로 주목한 현상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태도 극화(polarization)였다(Mutz, 2006; Slater, 2007; Stroud, 2010). 태도 극화란 "정치 후보자나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개인의 기존 입장이나 태도가 강화되는 현상"(Stroud, 2010, p. 557)을 말하며 사회적으로는 공적 이슈에 대해 합의하기보다는 집단 간의 의견 차이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보수성향의 시민이 공적 인물이나 이슈에 대해 더 보수적 시각을 갖게 되고 진보성향 시민은 더 진보적이 된다면,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지닌 집단은 서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대체로 정적 관계인 것으로 보고돼왔다. 다만,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사람들의 태도를 더욱 강화시킨다(태도 극화)는 견해와 함께, 정파적 성향의 사람들이 정파적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점검한 스트라우드(Stroud, 2010)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경향이 모두 발견되었으나, 전자(선택적 미디어 이용 → 태도 극화)가 반대의 경우보다 조금 더 지지를 받았다. 실제 슬레이터(Slater, 2007)는 개인의 정파성과 미디어 이용은 나선처럼 서로 상호적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에 대한 관심은 정파적 성격을 지니는 매체, 즉 라디오 토크쇼, 케이블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 등이 성장하면서 부각되었다. 특히 보수적 색채가 강했던 라디오 토크쇼 청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라디오 청취와 보수화 경향의 정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Barker & Knight, 2000; Hollander, 1996; Jones, 2002; Owen, 1997). 예를 들어, 보수 색채가 짙은 라디오를 자주 청취하는 시민과 TV나 신문을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 이용자를 비교한 결과 라디오 토크쇼 청취자가 당시 재임 중이던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과 행정부에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Owen, 1997). 또한, 흥미롭게도 보수적 성향의 림보 토크쇼 청취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다양한 이슈 중 림보 토크쇼에서 자주 언급된 이슈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Barker & Knight, 2000).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보수 성향이 이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라디오 청취가 보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기술의 등장으로 정파성 선택적 이용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시민들은 수많은 정보 중에서 필연적으로 특정 정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전통적 매체들이 정치적 균형을 추구한 것과 달리 인터넷의 많은 정보 제공자는 정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김범수 · 손연우, 2015; Garrett. 2009; Johnson et al., 2009). 예를 들어, 블로그 이용자들은 다양한 블로그 중 정파성에 일치하는 블로그를 더 이용하고, 이러

한 선택적 미디어 이용은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Johnson et al., 2009). 국내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유권자가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유권자에 비해 이념적으로 더 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김범수 · 손연우, 2015). 구체적으로, 인터넷 이용자 집단에서 정몽준 후보자를 싫어하고 박원순 후보자를 좋아하는 비율은 51.3%인 데 비해, TV이용자 중에는 그 비율이 11.8%였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정파적 미디어 이용 혹은 선택적 미디어 이용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집단에 대한 의견 격차를 확대해, 집단 갈등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존스(Jones, 2002)는 1992년과 1996년의 종단연구를 통해 보수 색채 라디오 방송의 토크쇼 애청자의 경우, 진보주의자, 여성운동, 노동조합 등 정치적 입장이 상반된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도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수의 특정 계층을 목표로 삼는 내로캐스팅(narrowcasting) 미디어를 이용할수록 계급간 이해가 엇갈리는 이슈에 대한 의견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ones, 2002; Mendelsohn & Nadeau, 1996). TV 신문 등 대중매체와 내로캐스팅 미디어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전통적인 대중매체의 이용자들이 내로캐스팅 미디어 이용자들에 비해 사회의 집단 간 갈등적 이슈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관점을 보였다(Mendelsohn & Nadeau, 1996). 연구자들은 "전통적 대중매체는 사회계급 간 이해가 충돌하는 이슈에 대해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지만, 특정 계층을 목표로 하는 미디어는 이들에 유리한 정보를 주로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정파적 성향의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면서 매체 이용과 극화 및 사회갈등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가 적지 않다(금희조 · 조재호, 2015; 김범수 · 손연우, 2015; 노정규 · 민영, 2012; 원희영 · 윤석민, 2015; 유경한 · 심훈 · 김경모, 2017; 이정훈 · 이상기, 2016; 정낙원, 2015). 원희영과 윤석민(2015)은 제 18대 대통령선거 보도를 분석한 결과 TV조선과 채널A가 당시 보수당 후보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편향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20대 총선 기간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선거관련 대담을 분석한 연구도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편파적으로 배척하는 경향을 확인했다(유경한 외, 2017). 이정훈과 이상기(2016)는 종편의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 보고서를 분석한 뒤 종편은 지지 정파에 대한 긍정적 묘사보다는 반대 정파에 대한 분노와 혐오로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국내에서는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 등의 편파성이 문제로 지적되는 등 정파적 보도의 경향이 확인되는 만큼, 정파적 미디어의 이용과 개인의 태도 극화의 관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2를 제기한다.

연구가설 2.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는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다. 즉, 정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정파적 미디어를 통해 얻을수록 해당 이슈에 대한 태도는 극화될 것이다.

3) 태도 극화의 과정: 정파적 지식 습득과 해석의 역할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태도의 극화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론적 추정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스트라우드(2007)는 태도 극화를 특정 환경에서 개인들의 태도는 지배적인 의견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집단 커뮤니케이션의 효과(Turner, 1991)로 설명했다. 다시 말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토론이나 상호작용을 통해 지배적인 의견의 방향으로 이동하듯이, 일방의 주장을 담은 메시지 혹은 영화와 같은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도 동일한 효과에 이른다는 것이다. 노정규와 민영(2012)의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연구자들은 선택적 노출이 태도를 극화시키는 과정에서 우호적 여론 지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동질적인 집단과의 토의에 참여한 개인들이 기존의 태도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동질적인 사람들과의 토의 과정에서 보다 설득적인 메시지를 수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Isenberg, 1986). 동질적인 미디어를 이용할 때의 과정도 이와 동일하게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는 미디어를 보면서 자신의 의견이 지지를 받으면서 더욱 설득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며 기존의 태도를 더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한다(Stroud, 2010).

다른 관점에서는 태도 극화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정보처리와 관련된 일련의 왜곡된 과정에 주목해왔다(Taber & Lodge, 2006). 이들 연구는 정파성이 강한 개인 어떤 정보를 추구하고 습득하며 어떻게 해석하는지, 즉 정보의 추구, 습득, 해석 등 정보처리 과정에서 기존의 태도에 부합하는 정보를 더 선택하는, 즉 정보처리의 왜곡이 일어나는지에 관심을 둔다. 테이버와 로지(2006)의 연구는 차별금지정책(affirmative action)과 총기규제에 대한 수용자들의 사전태도를 측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더 선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점검한 뒤, 기존 태도에 일치하는 정보추구가 기존 태도를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즉, 수용자 성향 → 성향과 일치하는 정보 추구 → 수용자 성향의 강화). 이에 비해 지식의 습득과 해석에 중점을 둔 연구들은 수용자의 정보추구 결과인 "지식의 습득"과 "해석"에 더 주목했다(Jerit & Barabas, 2012). 미디어 이용의 결과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에 유리한 정보를 더욱 잘 습득하는 "정파적 지식 습득"과 "정파적 해석"이 발견되는지를 분석함으로

써,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어떤 왜곡된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 태도 극화에 이르는지를 분석하려는 시도였다. 관련 연구에서 정파적 지식 습득의 경향은 복지 재정 등과 같은 정부의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정책 관련 사실(policy relevant facts)'뿐 아니라(Gilens, 2001) 대통령의 성과, 혹은 정치인의 특성 등에서도 나타났다(Lebo & Cassino, 2007; Redlawsk, 2002; Rudolph, 2006). 구체적으로, 물가상승률, 실업률, 범죄율, 재정적자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언론이 보도할 때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우호적인 기사 혹은 정보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불리한 기사보다 더 잘 습득하며, 이러한 경향은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이슈에서 더욱 두드러졌다(Jerit, Barabas, & Bolsen, 2006; Jerit & Barabas, 2012).

정파적 해석에 주목한 연구들은 지식을 정파성에 유리하게 해석하는가에 관심을 둔다(Mutz, 2006).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파성이 두드러진 집단은 공공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해당 정보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ines et al., 2007). 미국과 이라크 전쟁 당시, 전쟁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보수당 지지자들은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 숫자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더라도 그 숫자가 비교적 적다고 해석하는 반면, 전쟁에 반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동일한 사망자 숫자를 비교적 많다고 해석했으며, 이는 곧 전쟁에 대한 지지, 혹은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태도와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정파적 지식 습득이나 해석이 시민들이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혹은 정치 후보자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정파적 지식이나 해석이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를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이러한 연구들은 비록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정파적 미디어 이용은 정파적 지식습득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태도 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파적 미디어이용, 정파적 지식습득, 정파적 해석, 그리고 개인의 태도 극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기하였다.

연구가설 3. 정파적 지식습득은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즉, 정파적 미디어 이용은 지식 습득을 통해 태도 극화로 이어질 것이다.

연구가설 4. 정파적 해석은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즉, 정파적 미디어 이용은 정파적 해석을 통해 태도 극화로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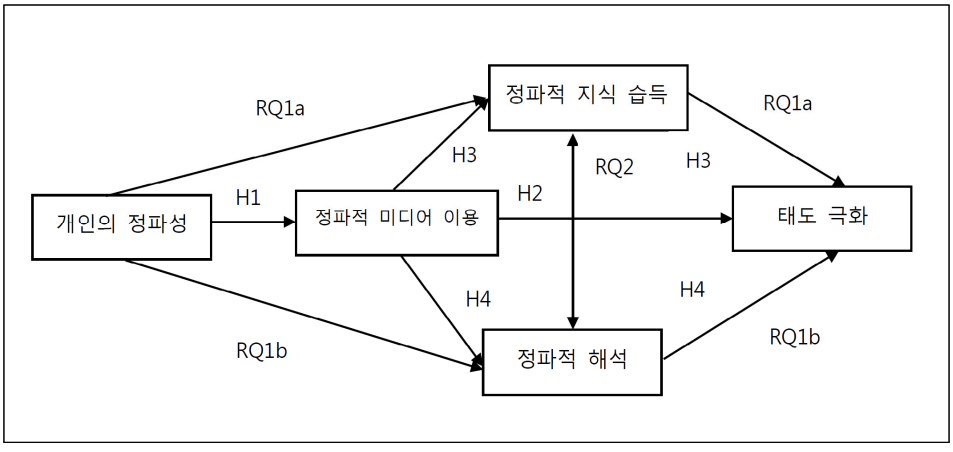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가설과 연구문제

본 연구는 더 나아가, 정파적 미디어의 이용 없이도 태도가 극화될 수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점검해보았다. 이러한 연구문제는 태도 극화의 주된 원인을 정파적 미디어 이용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해 지침을 줄 수 있다. 즉, 일부 연구자들은 시민들이 정파적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파적 지식에 주로 노출하기 때문에 극화에 이르며 만일 비정파적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접하게 된다면, 해당 이슈에 대한 태도는 좁혀질 수 있다고 본다(Gerber & Green, 1999). 다시 말해, 태도 극화의 주된 원인은 정파적 미디어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해, 해당 미디어에 주로 노출되는 정파적 미디어 이용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정파적 미디어 이용 없이도 개인의 정파성이 태도 극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정파적 지식과 정파적 해석을 구분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1〉을 제기하였다.

연구문제 1a. 개인의 정파성은 정파적 지식 습득을 통해 태도 극화로 이어질 것인가?
연구문제 1b. 개인의 정파성은 정파적 해석을 통해 태도 극화로 이어질 것인가?

한편, 정파적 지식 습득이란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한 정보를 더 잘 습득하는 것인 만큼, 정파에 유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파적 지식과 정파적 해석이 동일한 방향으로, 정파에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파적 지식과 정파적 해석이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예측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

구문제 2〉를 제기하였다.

연구문제 2. 보수에 불리한 이슈에 대한 정파적 지식 습득과 정파적 해석은 어떠한 관계를 보일 것인가?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개인의 정파성이 미디어 이용을 통해 개인의 태도 극화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 온라인 설문조사 및 표본의 특성

온라인 설문조사는 19대 대통령선거 직전인 2017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에 걸쳐 실시됐다. 본 조사에는 19세 이상 유권자 1,032명이 최종적으로 참여했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을 실시했다. 성별로는 남성 50.8%, 연령별로는 19～29세 18.2%, 30～39세 19.6%, 40～49세 24.6%, 50～59세 22.9%, 60세 이상이 14.7%였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 20.3%, 경기・인천 30.2%, 충청 10.4%, 경남 15.9%, 경북 9.7%, 전라 9.5%, 강원・제주가 4.1% 등이었다.

2) 주요변인 측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Gaines et al, 2007; Jerit & Barabas, 2012)에서와 같이, 일부 공적이슈들을 특정 정당에 더욱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파적 이슈(partisan-relevant issue)"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보수에 불리한 이슈(혹은 진보에 유리한 이슈)를 세 개 선정한 뒤 해당 이슈에 대한 지식을 측정했다. 한국에서는 2016년 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이슈들이 언론의 집중적 포화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박근혜 탄핵에서 주요하게 부각됐던 최순실 국정 개입, 블랙리스트 작성, JTBC태블릿PC보도 등 세 가지 이슈를 "정파적 이슈"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Knobloch-Westernwick, 2012; Taber & Lodge, 2006)에서도 정파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는 몇 개의 타깃 이슈를 선정한 뒤 이에 대한 선택적 노출과 태도변화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1) 정파적 지식 습득

선행연구(Gaines et al, 2007; Jerit & Barabas, 2012)를 참고해 정파적 지식 습득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제릿과 바라바스(Jerit & Barabas, 2012)의 연구에서는 특정 이슈가 공화당(혹은 민주당)에 관련된 "정파적 사실(partisan-relevant facts)"인지를 결정한 뒤 해당 이슈에 대한 공화당 지지자의 지식을 정파적 지식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게인스 외(Gaines et al., 2007)는 이라크 파병에서 사망한 병사의 숫자에 대한 지식을 정파적 지식으로 측정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앞서 밝힌 세 가지 이슈– 최순실 국정 개입, 블랙리스트 작성, JTBC 태블릿PC 보도– 에 대한 지식을 각각 측정하였다. 해당 이슈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질문하였으며, 이슈에 따라 각각 2~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2] 각 문항은 5지선다의 객관식 문항이었으며,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을 부여한 뒤 평균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해당 이슈에 대한 점수가 높다는 것은, 보수에 불리한 이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순실 국정 개입(M = .55, SD = .25), 블랙리스트 작성(M =. 40, SD = .32), JTBC 태블릿PC 보도(M = .21, SD =.20) 등이다.

(2) 정파적 해석(Partisan Interpretation)

선행연구(Gaines et al., 2007)에 따라 정파적 해석이란 동일한 사실에 대해 자신의 정파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동일한 사실에 대해 정파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최순실 국정 개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보낸 것은 쉬운 표현 조언을 위해 의견을 물은 것에 불과해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라는 진술문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로 질문했다(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점 매우 동의한다). 정파적 지식에서와 마찬가지로 3개 이슈에 대해 각각 4~5개의 질문으로 정파적 해석 여부를 측정하였다. 해석의 문구는 언론에서 해당 이슈에 대해 논쟁적인 관점으로 보도한 내용을 참고하였다.[3] 이후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보수에 유리하게 해석할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리코딩하였다. 최순실 국정 개입(Cronbach's α =. 62, M = 2.94, SD = 1.20), 블랙리스트 작성(Cronbach's α = . 79, M = 3.05, SD = 1.27), JTBC 태블릿 보도(Cronbach's α = . 83, M = 2.96, SD = 1.47) 등이다.

---

2) 측정을 위한 해당 이슈별 상세한 질문은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3) 측정을 위한 해당 이슈별 상세한 질문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정파적 미디어 이용

선행연구에서 정파적 미디어 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다(민영, 2016; Johnson et al., 2009; Kim, 2015).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정파성과 이용 미디어의 정파성 일치 여부로도 측정할 수 있으나(Kim, 2015; Stroud 2010), 보수적 성향의 개인이 보수적 미디어를 주로 이용하거나 진보적 미디어를 회피하는 경향으로 측정할 수 있다(Johnson et al., 2009; 민영, 2016).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참고해 4개 문항으로 측정했다. 즉, 보수적 미디어 이용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와 "나는 여당에 우호적인 뉴스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접한다"는 2개의 문항을 측정하였다(5점 리커트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Cronbach's α = .84 M = 2.36 , SD = .97). 또한 진보적 성향의 미디어 이용의 경우, "나는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나는 야당에게 우호적인 뉴스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접한다"는 2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5점 리커트 척도, Cronbach's α = .86, M = 2.80 , SD = .98). 정파적 성향이란 보수적 성향의 개인의 경우, 미디어 이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할수록, 그리고 진보적 미디어를 회피할수록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결과의 일관성을 위해, 정파적 미디어 이용의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진보적 미디어 이용 관련 점수를 리코딩하였으며 이를 보수적 미디어이용 점수와 합산하였다(M = 2.78, SD = .69). 따라서 정파적 미디어 이용의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 미디어를 주로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4) 태도 극화(Polarization)

선행연구에서 태도 극화(polarization)는 종단적 연구인지, 횡단적 연구인지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다(김범수 · 손연우, 2015; Jones, 2002; Kim, 2015; Lee et al., 2014; Stroud, 2010; Wojcieszak, 2011). 일반적으로 태도 극화란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나 입장이 강화되는 것"(Stroud, 2010, p. 557)을 의미하는 만큼 종단적 연구에서 보다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횡단적 연구를 통해 극화를 측정한 바 있다(김범수 · 손연우, 2015; Kim, 2015; Stroud, 2010; Wojcieszak, 2011). 이 가운데, 정치 후보자에 대한 태도 극화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특정 시점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른 두 후보자에 대한 태도 격차 정도로 측정했으며(민영, 2016; Kim, 2015; Stround, 2010) 특정 이슈에 대한 태도 극화를 점검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태도가 집단의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의 절댓값으로 측정해왔다(김범수 · 손연우, 2015; Wojcieszak & Rojas,

2011). 본 연구는 정파적 이슈에 대한 태도 극화를 분석하였으므로 후자의 방식인 '개인의 해당 이슈에 대한 태도가 집단의 평균값에서 떨어진 정도(절댓값)'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이슈에 대한 극화 점수는 두 단계로 측정했다. 첫 번째 단계에는 개별 이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는 여기서 측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값에서 떨어진 정도(절댓값)로 극화점수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최순실 국정 개입' 이슈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특수검사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기소의 타당성에 대한 동의 정도와 찬성 정도를 각각 2개 문항의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0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10점, 적극 동의함). 이들 문항은 "특수검사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기소는 타당했다" 등이었으며, 보수적 성향일수록 해당 문항에 동의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보일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보수일수록 높은 점수를 보이도록 태도 점수를 리코딩하였다(Cronbach's α =.97 M = 2.23, SD = 3.01). 예를 들어, 박근혜 탄핵의 타당성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해 10점(적극 동의함)으로 표기한 경우, 0점으로 환산하고, 0점(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0점으로 환산하였다. 이는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나 정파적 해석 변인의 경우에도 보수일수록 높은 점수를 보이도록 설계해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극화점수는 리코딩한 태도 점수를 기준으로 집단의 평균값에서 떨어진 정도(절댓값)로 구하였다. 즉, 극화 점수는 이슈별 태도 점수에 대한 집단 평균값(리코딩한 값)으로부터 개인의 태도 점수(리코딩한 값)를 뺀 값의 절댓값으로 구하였다.

JTBC 태블릿PC 보도의 이슈에 대한 태도 역시 보도의 타당성과 찬성 여부를 11점 척도로 측정했다. 이 경우에도 보수일수록 태블릿PC보도의 타당성에 낮은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수일수록 높은 점수를 보이도록 리코딩하였고(Cronbach's α = .95 M = 2.99, SD = 2.90) 이를 기준으로 극화점수를 구하였다. 다만,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이슈에 대한 태도의 경우에는 보수일수록 높은 점수를 보여 리코딩하지 않았으며(Cronbach's α = .93 M = 2.21 , SD = 2.70), 이를 기준으로 극화점수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극화점수의 평균이 매우 낮으며, 이는 보수일수록 극화점수가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각 이슈에 대한 극화점수는 다음과 같다. 최순실 국정 개입 M = 2.48, SD = 1.70; 블랙리스트 작성 이슈 M = 2.28, SD = 1.45; JTBC의 태블릿PC 보도 M = 2.43, SD = 1.58).

(5) 개인의 정파성(partisanship)

선행연구와 같이 개인의 정치적 이념은 7점 척도로 측정했다(1점 '매우 강한 진보 성향',

7점 '매우 강한 보수 성향'). 1~3점은 진보 성향, 5~7점은 보수 성향, 4점을 중도성향으로 구분했다(M = 3.94, SD = 1.29).

(6) 통제변인

선행연구에서 정파적 지식습득은 일반적 정치지식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반적 정치지식의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포함시켰다. 일반적 정치지식을 측정한 선행연구(Delli Carpini & Keeter, 1993)와 같이 제도적인 측면과 사회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기 위해 국회 다수당,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정당, 국회의원임기,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 한국의 경제성장률, 한국의 2016년 연간 예산 등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정확하게 답한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고 평균을 산출하였다(M = .65 SD = .25). 또한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활용되었던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 성별, 그리고 지역을 포함시켰다.

4. 연구결과

선행연구 검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MPLUS v.5.2(Muthén & Muthén, 2007)를 사용하여 3개 이슈－최순실 국정 개입, 블랙리스트 작성, JTBC 태블릿 보도－에 대해 각각 경로모형을 검증하였으며,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경로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포함된 변인들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 절댓값을 살펴보았다. 모든 변인들이 왜도 절댓값 2 이하, 첨도 절댓값 7 이하에 해당하므로(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 2009)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평균과 표준편차)와 단순 상관관계를 3개 이슈별로 정리하면 〈표 1〉, 〈표 2〉, 〈표 3〉과 같다.

1) 모형 적합도 및 통제변인

모형 적합도 평가를 위해서 후와 벤틀러(Hu & Bentler, 1999)가 제안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다양한 적합도 지수들의 장 · 단점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모형 지수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χ^2, CFI > .90, TLI > .90, RMSEA < .80을 기준으로 모형 적합도를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최순실 국정 개입: 모형 1)

최순실 국정 개입 (모형 1)	1.	2.	3.	4.	5.
1. 개인의 정파성	–				
2. 정파적 미디어 이용	.605**	–			
3. 정파적 지식습득	−.002	−.058	–		
4. 정파적 해석	.343**	.379**	−.161**	–	
5. 태도 극화	.268**	.347**	.011	.445**	–
M	3.94	2.78	.55	2.94	2.48
SD	1.29	.69	.25	1.20	1.70

**$p < .01$. 통제변인을 제외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제시함.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블랙리스트 작성: 모형 2)

블랙리스트 작성 (모형 2)	1.	2.	3.	4.	5.
1. 개인의 정파성	–				
2. 정파적 미디어 이용	.605**	–			
3. 정파적 지식 습득	−.078*	−.163**	–		
4. 정파적 해석	.449**	.510**	−.350**	–	
5. 태도 극화	.244**	.295**	−.058	.405**	–
M	3.94	2.78	.40	3.05	2.28
SD	1.29	.69	.32	1.27	1.45

*$p < .05$, **$p < .01$. 통제변인을 제외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제시함.

표 3. 주요 변인들의 상관 관계, 평균, 표준편차 (JTBC 태블릿PC 보도: 모형 3)

JTBC 태블릿 보도 (모형 3)	1.	2.	3.	4.	5.
1. 개인의 정파성	–				
2. 정파적 미디어 이용	.605**	–			
3. 정파적 지식습득	−.087**	−.087**	–		
4. 정파적 해석	.393**	.523**	−.233**	–	
5. 태도 극화	.164**	.203**	.127**	.250**	–
M	3.94	2.78	.21	2.96	2.43
SD	1.29	.69	.20	1.47	1.58

*$p < .05$, **$p < .01$. 통제변인을 제외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제시함.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 개 이슈별 경로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국정 개입 모형(모형 1)의 경우, 모형 적합도 지수는 $\chi^2 = 91.263$($df = 19$, $p < .001$), CFI = .94, TLI = .90, RMSEA = .06으로 나타났으며, 블랙리스트 작성 모형(모형 2)의 경우, $\chi^2 = 73.07$($df = 19$, $p < .001$), CFI = .96, CFI = .94, TLI = .93, RMSEA = .05, JTBC 태블릿PC 보도 모형(모형 3)의 경우, $\chi^2 = 46.86$($df = 19$, $p < .001$), CFI = .98, CFI = .94, TLI = .95, RMSEA = .04였다.

또한 통제변인의 경우, 태도 극화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 성별, 거주 지역)을 통제한 결과, 모형 1, 2, 3에서 공통적으로 연령만 태도 극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_{모형1} = .17$, $p < .001$; $\beta_{모형2} = .10$, $p < .05$; $\beta_{모형3} = .17$, $p < .001$). 정파적 이슈에 대한 지식 습득은 일반적 정치지식과 높은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적 정치지식의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한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3개 모형 모두에서 일반적 정치지식과 정파적 지식습득이 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beta_{모형1} = .44$, $p < .001$; $\beta_{모형3} = .37$, $p < .001$; $\beta_{모형3} = .24$, $p < .001$).

2) 연구가설 검증 및 연구문제 테스트

변인 간 직 · 간접 경로계수의 유의도 검증 결과를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정파성은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정적인 관계($\beta = .61$)를 보임으로써 〈연구가설 1〉이 지지되었다. 개인의 정파성은 정파적 미디어 이용은 본 연구에서 채택한 3개의 이슈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측정한 것이므로 3개 모형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연구가설 2〉와 관련해, 박근혜 탄핵 모형(모형 1)과 블랙리스트 작성 모형(모형 2)에서, 개인의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의 극화는 정적인 관계($\beta_{모형1} = .18$, $p < .001$; $\beta_{모형2} = .11$, $p < .05$)를 보여주었다. 모형 3(JTBC 태블릿 보도 모형)에서는 두 변인 간 직접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의 극화 관계를 설정한 모형 3을 제외한 모형 1, 2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연구가설 2〉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된 것처럼 보이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의 극화는 세 개의 이슈별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_{최순실} = .35$, $r_{블랙리스트} = .30$, $r_{태블릿} = .20$). 그러나 경로분석 모형에서는 정파적 지식습득과 정파적 해석 변인이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태도의 극화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직접경로계수)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모형 3(JTBC 태블릿)에서, 매개 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기저 모형(baseline model)을 분석해본 결과,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태도 극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_{모형\,3} = .16, p < .001$). 다시 말해, 〈연구가설 3〉과 〈연구가설 4〉에 해당하는 정파적 지식습득과 정파적 해석 변인의 매개효과와 관련이 있으며, 매개효과 존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매개효과 결과는 아래 〈연구가설 3〉과 〈연구가설 4〉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앞서 언급한 〈연구가설 3〉(정파적 지식습득은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은 모형 1, 2, 3에서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 모형 1과 3에서는 정파적 미디어 이용(독립변인)과 정파적 지식습득 변인(매개변인)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 1에서는 정파적 지식습득(매개변인)이 태도 극화(종속변인)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개효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인과 독립변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미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모형 2에서는 정파적 지식습득(매개변인)이 정파적 미디어 이용(독립변인)과 부적 관계($\beta_{모형\,2} = -.15, p < .001$)를, 태도 극화(종속변인)와 정적 관계($\beta_{모형\,2} = .06, p < .05$)를 보이는 등 직접효과는 유의미했지만,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정파적 지식습득을 매개로 하여 태도 극화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

넷째, 〈연구가설 4〉(정파적 해석은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는 3개 모형에서 모두 지지되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벨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변인사이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 1, 2, 3에서 일관되게 정파적 해석이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파적 미디어 이용은 정파적 해석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beta_{모형\,1} = .27, p < .001$; $\beta_{모형\,2} = .38, p < .001$; $\beta_{모형\,3} = .45, p < .001$)을 미치고, 정파적 해석은 태도 극화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beta_{모형\,1} = .35, p < .001$; $\beta_{모형\,2} = .35, p < .001$; $\beta_{모형\,3}$

4) 다만,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했듯,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정파적 지식습득과 정파적 해석에 영향을 미쳐 태도 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_{모형\,2.} = .03, p < .001$). 즉, 보수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할수록 보수에 불리한 이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부적관계, $\beta_{모형\,2.} = -.15$), 보수에 불리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보수에 유리하도록 해석하지 않으며(부적관계, $\beta_{모형\,2.} = -.31$) 보수에 불리하게 해석할수록 태도 극화 점수가 낮다(정적 관계, $\beta_{모형\,2.}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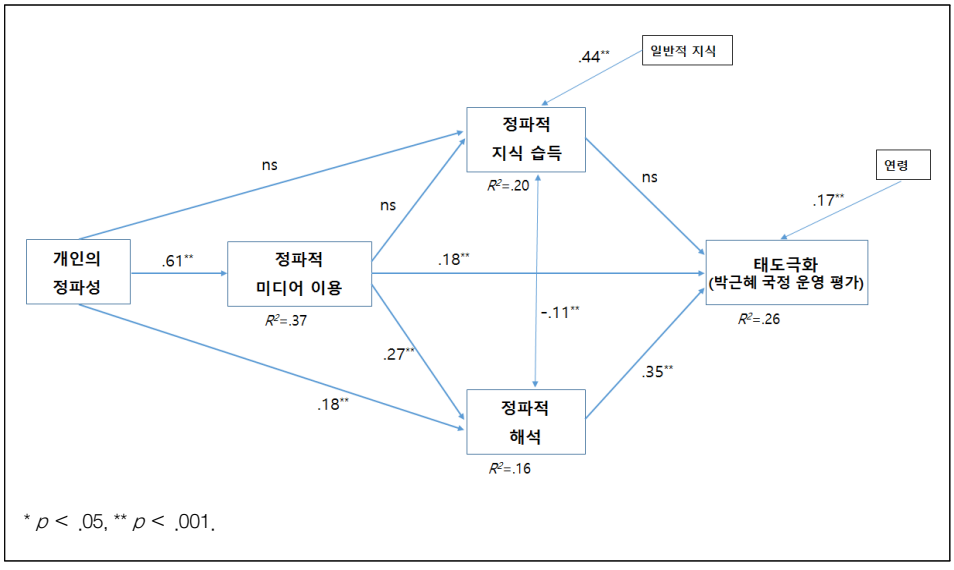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모형 1(최순실 국정 개입) 경로분석 결과

= .24,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서,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정파적 해석을 매개로 하여 태도 극화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_{모형\,1}$ = .09, p < .001; $\beta_{모형\,2}$ = .13, p < .001; $\beta_{모형\,3}$ = .11, p < .001).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모형 1과 2의 경우,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의 관계가 매개변인을 추가한 후 경로계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함으로써($\beta_{모형\,1}$ = .35 → $\beta_{모형\,1}$ = .18; $\beta_{모형\,2}$ = .30 → $\beta_{모형\,2}$ = .11) 정파적 해석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여준 반면, 모형 3의 경우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 변인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매개변인을 추가한 후 경로계수가($\beta_{모형\,3}$ = .20, p < .001 → $\beta_{모형\,3}$ = .06, p > .05)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으로써 정파적 해석이 완전 매개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주었다. 즉, 앞서 〈연구가설 2〉의 검증에서 모형 2의 경우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태도 극화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정파적 해석이 두 변인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연구문제 1a〉(개인의 정파성은 정파적 지식습득을 통해 태도 극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소벨 테스트 결과, 모형 3에서는 정파적 지식습득이 개인의 정파성과 태도 극화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1과 2에서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경우,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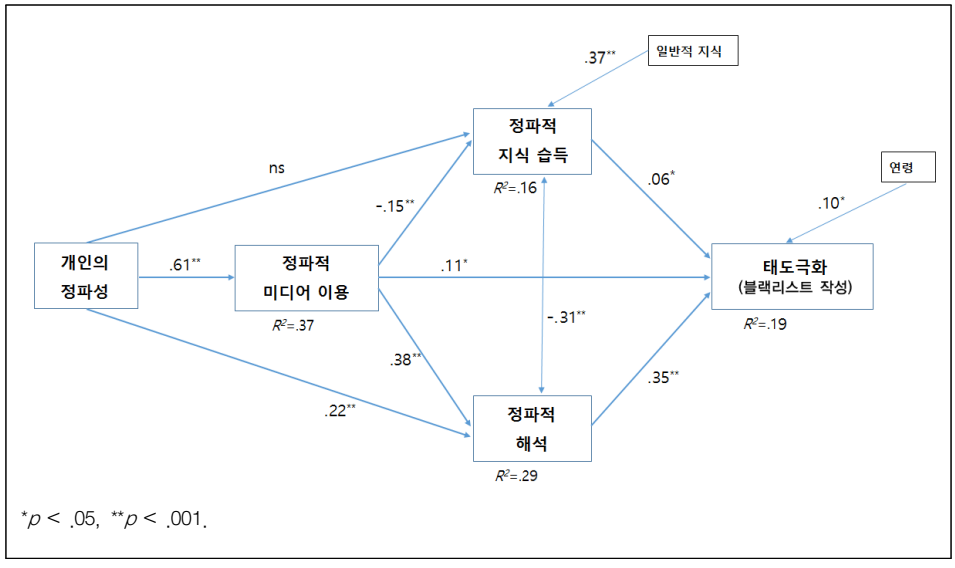

그림 3. 연구 모형 2(블랙리스트 작성) 경로분석 결과

인의 정파성은 정파적 지식습득에 부정적인 영향($\beta_{모형3} = -.09, p < .05$)을 미치고, 정파적 지식습득은 태도 극화에 긍정적 영향($\beta_{모형3} = .18,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정파성은 정파적 지식습득을 매개로 하여 태도 극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_{모형3} = -.02, p < .05$). 즉, 보수적 성향일수록 JTBC 태블릿PC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했으며, 이는 태도 극화에 유의미한 영향(본 연구에서는 JTBC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1과 2의 경우, 개인의 정파성은 정파적 지식습득과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기본 가정이 위배되었다.

여섯째, 〈연구문제 1b〉(개인의 정파성은 정파적 해석을 통해 태도 극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정파적 해석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3개 모형 모두에서 일관되게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정파성이 정파적 해석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beta_{모형1} = .18, p < .001$; $\beta_{모형2} = .22, p < .001$; $\beta_{모형3} = .12, p < .001$)을 미치고, 정파적 해석은 태도 극화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beta_{모형1} = .35, p < .001$; $\beta_{모형2} = .35, p < .001$; $\beta_{모형3} = .24,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정파성이 정파적 해석을 매개로 하여 태도 극화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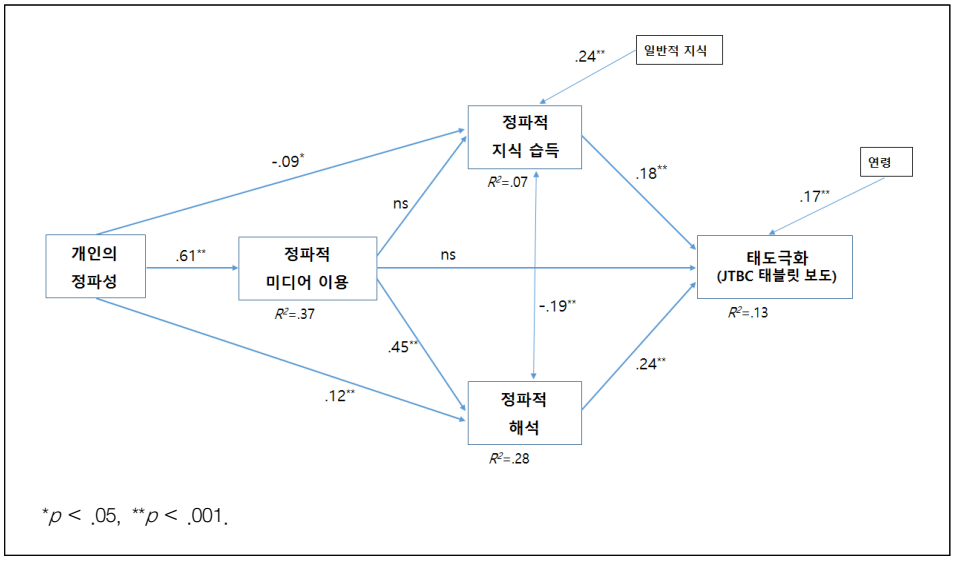

그림 4. 연구 모형 3(JTBC 태블릿 보도) 경로분석 결과

타났다($\beta_{모형\,1}$ = .06, p < .001; $\beta_{모형\,2}$ = .08 p < .001; $\beta_{모형\,3}$ = .03, p < .05). 다시 말해, 보수적 성향일수록 보수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태도 극화(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이다.

한편, 〈연구문제 2〉(정파적 지식습득과 정파적 해석)의 경우 3개 모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두 변인은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beta_{모형\,1}$ = −.11, p < .001; $\beta_{모형\,2}$ = −.31, p < .001; $\beta_{모형\,3}$ = −.19, p < .001). 본 연구에서 정파적 해석은 모두 보수적일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만큼, 보수에 불리한 정파적 이슈에 대해 지식습득이 높을수록 덜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보수적 성향일수록 보수적인 미디어를 이용하며(〈연구가설 1〉 지지), 정파적 미디어를 이용할수록 보수에 불리한 세 가지 이슈에 대해 태도 극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가설 2〉 지지, 단, 모형 2의 경우 두 변인 간 관계가 정파적 해석의 완전 매개 효과에 의해 설명됨). 그러나 보수적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과 보수에 불리한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거나(모형 1, 3)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2). 따라서 〈연구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세 가지 이슈 모두에서 보수적 미디어를 이용할수록 보수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표 4. 경로모형에서 산출된 직·간접 효과 경로계수

매개변인	효과	경로	모형1(최순실 국정개입)			모형2(블랙리스트)			모형3(JTBC 태블릿)		
			B	SE	β	B	SE	β	B	SE	β
지식습득 (연구가설 3)	직접	미디어이용→지식습득	−0.019	0.013	−0.053	−0.070**	0.016	−0.154**	−0.010	0.011	−0.034
	직접	지식습득→태도극화	0.263	0.185	0.039	0.285*	0.138	0.062*	1.400**	0.232	0.179**
	간접	미디어이용→지식습득→태도극화	−0.005	0.005	−0.002	−0.020	0.011	−0.009	−0.014	0.016	−0.006
정파적 해석 (연구가설 4)	직접	미디어이용→정파적 해석	0.471**	0.062	0.270**	0.691**	0.060	0.376**	0.959**	0.071	0.450**
	직접	정파적 해석→태도극화	0.490**	0.041	0.183**	0.399**	0.039	0.351**	0.253**	0.037	0.235**
	간접	미디어이용→정파적 해석→태도극화	0.231**	0.036	0.094**	0.276**	0.036	0.132**	0.243**	0.040	0.106**
지식습득 (연구문제 1a)	직접	개인의 정파성→지식습득	−0.002	0.007	−0.010	−0.005	0.009	−0.019	−0.014*	0.006	−0.089*
	직접	지식습득→태도극화	0.263	0.185	0.039	0.285*	0.138	0.062*	1.400**	0.232	0.179**
	간접	개인의 정파성→지식습득→태도극화	0.000	0.002	0.000	−0.001	0.003	−0.001	−0.019*	0.009	−0.016*
정파적 해석 (연구문제 1b)	직접	개인의 정파성→정파적 해석	0.167**	0.033	0.179**	0.218**	0.032	0.222**	0.138**	0.038	0.121**
	직접	정파적 해석→태도극화	0.490**	0.041	0.183**	0.691**	0.060	0.351**	0.253**	0.037	0.235**
	간접	개인의 정파성→정파적 해석→태도극화	0.082**	0.018	0.062**	0.087**	0.015	0.078**	−0.019*	0.009	0.028*

*$p < .05$. **$p < .01$.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태도 극화로 이어졌다(〈연구가설 4〉 지지). 한편, 정파적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수적 성향일수록 정파적 해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연구문제 1b〉), 보수적 성향인 경우 보수에 불리한 이슈에 대한 정보는 낮아지거나(모형 3) 혹은 관련이 없었다(모형 1, 2, 〈연구문제 1a〉). 마지막으로 보수에 불리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2〉).

5. 논의

본 연구는 개인의 정파성에 따른 미디어 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 극화에 이르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정파성에 바탕을 둔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해당 이슈에 대한 태도를 극화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해 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정파적 미디어 이용에 따른 부족한 지식 때문인지, 해석 때문인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본 연구는 정파적 이슈를 둘러싼 지식 습득과 해석의 역할을 점검해보았다. 일부 태도 극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정파적 미디어와 정파적 지식습득(혹은 정파적 해석)의 관계, 혹은 정파적 지식습득(혹은 정파적 해석)과 태도 극화에 대한 긍정적 관계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즉, 정파적 지식 획득과 태도 극화를 주장하는 관점에서는 특정 이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해당 이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태도의 극화에서 해석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정파성이 강한 개인들은 동일한 정보라 하더라도 자신의 정파성에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주장했다(Gaines et al., 2007). 따라서 지식 획득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개인이 어떤 미디어를 이용해 어떤 정보를 얻느냐가 태도 극화에서 중요하지만, 해석에 방점을 두는 관점에서는 정파적 미디어의 이용이 태도 극화에 이르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하다(Mutz, 2006).

극화에 이르는 지식과 해석의 역할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한국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최순실 국정개입,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그리고 JTBC의 태블릿PC 보도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직결된 세 가지 이슈를 선택하였다. 이후 개인의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해당 이슈에 대한 핵심적인 지식 습득,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각각 측정하고 각각의 이슈에 대한 개인의 태도 극화 점수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을 토대로 정파적 이용, 지식 습득, 정파적 해석, 그리고 태도 극화

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이슈 모두에서 지식보다는 해석이 태도 극화에 더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Stroud, 2010) 본 연구에서도 개인들은 자신의 정파성과 일치하는 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가설 1〉).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정파적 미디어 이용은 세 가지 이슈 모두에서 개인의 태도 극화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연구가설 2〉, 단, 블랙리스트작성 모형에서는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 관계가 정파적 해석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남). 즉, 보수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미디어를 이용하거나 진보적인 사람이 진보적인 미디어를 이용할수록 세 가지 이슈에 대한 태도는 평균적인 태도보다 극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된 연구문제인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태도 극화에 미치는 과정에서의 지식 습득과 해석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우선, 지식 습득이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해당 이슈에 대한 지식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연구가설 3〉). 그 결과, 정파적 이슈에 대한 지식 습득은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해당 이슈에 대한 태도 극화를 매개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정파적 지식 습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정파적 이슈 관련 지식의 습득에 미치는 영향은 이슈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즉, 최순실 국정개입과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슈의 경우 미디어를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해당 이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즉, 지식의 수준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정파성과 일치하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은 최순실 국정개입 이슈, 혹은 JTBC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지식 정도와는 무관하였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작성 이슈에 대한 지식 정도는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수적인 미디어를 이용할수록 블랙리스트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낮았으며 이는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Jerit & Barabas, 2012)와 같이, 미디어 이용에서 정파적으로 유리한 이슈에 대해 더 잘 습득하고, 정파적으로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잘 습득하지 않는 "정파적 지식 습득"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보수적 미디어의 보도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볼 수 있다. 즉, 보수적 미디어에서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불리한 블랙리스트 관련 이슈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 보수적 미디어를 주로 이용한 개인들의 관련 지식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미디어에서 보도했더라도 선택적 노출의 주장에서처럼, 개인들이 정파성에 일치하는 정보를 더 잘 인식하고, 정파성에 위배되는 정보를 회피했기 때문에 지식의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블랙리스트 관련 지식이란 보수적일수록 회피하고 싶은 정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문제 2〉의 결과와 같이 세 가지 이슈 모두에서 보수에 불리한 이슈에 대한 지식수준과 보수에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정도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은 이러한 추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파적 해석이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았다(〈연구가설 4〉). 그 결과 세 가지 이슈 모두에서 정파적 해석은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JTBC 태블릿PC 보도 이슈에서는 정파적 해석이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정파적 미디어를 이용해 태도 극화가 되는 것은 정파적 해석 때문으로 나타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해당 이슈에 대한 정파적 해석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이슈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발견되었다. 즉, 보수적인 미디어를 이용할수록 해당 이슈를 보수에 유리하게 해석했다. 또한 정파적 해석은 개인의 태도 극화와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 보수적으로 해석할수록 이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는 평균적 태도보다 극화되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특정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의 정파성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왜곡된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 태도가 극화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파성이 정파적 미디어의 이용과는 별개로 지식습득을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태도 극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연구문제 1a〉), 그리고 정파적 해석을 통해 태도 극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연구문제 1b〉)를 점검해보았다. 연구 결과, 개인의 정파성은 정파적 이슈에 대한 지식 습득과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정파적 해석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정파성에 따라 왜곡된 정보처리과정을 거친다면, 정파적 미디어의 이용 없이도 객관적인 정보를 정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개인의 정파성과 정파적 해석의 관계는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정파적 해석과의 관계에 비해 미약했다. 즉, 개인의 정파성은 정파적 해석을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태도를 극화시키며, 이 과정에서 정파적 미디어의 이용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슈에 대한 태도 극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디어 이용의 결과, 수용자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제까지 학계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따른 미디어

다양성이 정치적인 다양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정파적 미디어를 이용해 태도 극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태도 극화의 원인을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라는 선택적 노출에 따른 제한된 정보(지식)의 습득으로 여겨, 만일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한 정보에 노출된다면 극화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Mutz, 2006).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만일 개인들이 동일한 정보에 노출되더라도 자신의 정파성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여전히 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개인이 어떤 메시지에 노출되느냐보다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태도 극화에서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Gaines et al., 2007).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토대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태도 극화에서 "정파적 해석"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정파적 지식 습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모형 3개 중 1개에서만 유의미), 주로 정파적 해석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블랙리스트작성 모형에서만, 보수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은 보수에 불리한 블랙리스트 작성 이슈에 대한 지식 습득과는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파성이 강한 유권자는 후보자의 속성을 인지할 때, 자신의 기존 태도와 일치하는 속성을 더 잘 인지하며, 비정파적인 유권자는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특징으로 인지한다는 선행연구(Sigel, 1964)와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파적인 미디어 이용이 새로운 정보를 맞춰 자신의 태도를 수정해가는 "합리적 모델"이 아닌 자신의 태도에 맞는 정보만을 선별해 받아들이고 이러한 정보와 별개로 "정파적 해석"을 강화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연구결과 보수에 불리한 이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에 유리한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한 정보 제공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함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선택한 이슈들의 성격이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세 가지 이슈는 모두 보수에 불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를 토대로 나온 결과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개인의 특징인지, 혹은 정파성(즉, 극단적 보수와 진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지식습득과 해석에서 진보나 보수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연구가 진행된 2017년 4월은 한국 사회가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경험을 하던 시기였기에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으며 진보에 불리한 사회이슈를 찾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에는 보수와 진보에게 불리한 이슈를 각각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 지식의 측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식 측정 문항의 타당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 사용된 지식 측정 문항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지식수준을 측정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다. 다만, 본 연구결과 세 가지 이슈에서 "보수적인 해석"과 "지식 습득"이 일관되게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측정의 일관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정파적 지식의 효과가 정파적 해석에 비해 정파적 미디어 이용과 태도 극화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역할을 한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정파적 지식"이 "정파적 이슈에 대한 지식"에 가깝다는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보수적 성향인 사람이 보수적 미디어를 이용할 경우, 보수에 불리한 지식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보수에 불리한 "정파적 지식"이란 "이라크 참전 병사의 사망자 숫자"와 같이 정파성에 보다 직결된 지식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파적 이슈에 대한 지식"을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질문으로 측정하였으며, 이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된 일부 질문문항은 선행연구보다 덜 정파적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파성과 직결된 지식의 측정문항을 개발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이슈들은 2016년 말부터 한국 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어, 정파성에 따른 지식습득의 효과(즉, 선택적 회피)가 제한적이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파성과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파적 이슈에 대한 태도 극화에 이르는지를 실제 이슈를 통해 분석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또한 최근 한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주목되는 태도 극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금희조 · 조재호 (2015). 종합편성채널 시사 토크쇼 시청이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시청의 주 효과 및 정치 성향과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한국방송학보〉, 29권 3호. 5-35.

김범수 · 손연우 (2015). 매체별 이용자의 극화수준 연구-인터넷과 TV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정보사회학회〉, 16권 2호, 17-45.

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노정규 · 민영 (2012). 정치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 태도 극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6권 2호, 226-248.

박지영 · 김예란 · 손병우 (2014). 종편 시사 토크쇼와 사담의 저널리즘. 〈언론과 사회〉, 22권 2호, 5-63.

민영 (2016). 선택적 뉴스 이용. 〈한국언론학보〉, 60권 2호, 7-34.

양승찬 · 이미나 (2013). 이견추구성향과 후보지지 여부가 정치적 메시지 처리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복합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4호. 5-26.

원희영 · 윤석민 (2015).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메인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권 1호. 117-148.

유경한 · 심훈 · 김경모 (2017).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선거 관련 대담 분석. 〈방송통신연구〉, 97호, 93-128

이정훈 · 이상기 (2016). 민주주의의 위기와 언론의 선정적 정파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7호, 9-35.

정낙원 (2015). 온라인 미디어와 정치적 집단 극화. 양승찬 외, 〈디지털사회와 커뮤니케이션〉 (219-250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정은교 · 금희조 (2014). 정보인가 오락인가: 정치 예능 토크쇼의 효과.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 362-390.

최윤정 · 이종혁 (2012). 인터넷 토론에서 이견 노출이 정치적 관용에 이르는 경로 분석: 의견 조정과 의견 공고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권 2호. 301-330.

한규섭 · 박주용 · 이덕재 · 이혜림 (2013). 트위터 팔로잉 관계에 대한 대표성과 양극화에 대한 논의 검증: 한국과 미국의 의회구성원들의 트위터 팔로워들 네트워크 비교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권 1호, 295-336.

황유선 (2013). 선택적 노출을 통해 바라본 트위터 공간의 이념적 양극화. 〈한국언론학보〉, 57권 2호, 58-79.

황용석 · 양승찬 · 이준웅 · 이원태 (2011). 인터넷에서 의견추구성향과 정치참여변인과의 관계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8권 2호. 149-185.

Barabas, J., & Jerit, J. (2009). Estimating the causal effects of media coverage on policy-specific

knowledg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1), 73-89.

Barker, D., & Knight, K. (2000). Political talk radio and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64*(2), 149-170.

Brundidge, J. (2010). Encountering "difference" in the contemporary public sphere: The contribution of the Internet to the heterogeneity of political discussion networks. *Journal of Communication*, *60*(4), 680-700.

Cotton, J. L. (1985). Cognitive dissonance in selective exposure. In D. Zillmann & J. Bryant (Eds.), *Selective exposure to communication* (pp. 11-33). Hillsdale, NJ: Erlbaum.

Delli Carpini, M. X., & Keeter, S. (1993). Measuring political knowledge: Putting first things fir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4), 1179-1206.

Festinger, L. (1962).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 Peterson.

Gaines, B. J., Kuklinski, J. H., Quirk, P. J., Peyton, B., & Verkuilen, J. (2007). Same facts, different interpretations: Partisan motivation and opinion on Iraq. *Journal of Politics*, *69*(4), 957-974.

Garrett, R. K. (2009). Politically motivated reinforcement seeking: Reframing the selective exposure debate. *Journal of Communication*, *59*(4), 676-699.

Gilens, M. (2001). Political ignorance and collective policy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2), 379-396.

Gerber, A., & Green, D. (1999). Misperceptions about perceptual bia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1), 189-210.

Hollander, B. A. (1996). Talk radio: Predictors of use and effects on attitudes about government.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3*(1), 102-113.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Isenberg, D. J. (1986). Group polarization: A critical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141-1151.

Iyengar, S., & Hahn, K. S. (2009).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59*(1), 19-39.

Jerit, J., & Barabas, J. (2012). Partisan perceptual bias and the information environment. *The Journal of Politics*, *74*(3), 672-684.

Jerit, J., Barabas, J., & Bolsen, T. (2006). Citizens, knowledge, and the information environ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2), 266-282.

Jones, D. A. (2002). The polarizing effect of new media messag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4*(2), 158-174.

Johnson, T. J., Bichard, S. L., & Zhang, W. (2009). Communication communities or "cyberghettos?": A path analysis model examining factors that explain selective exposure to blog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5*(1), 60-82.

Kim, Y. (2015). Does disagreement mitigate polarization?: How selective exposure and disagreement affect political polariza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2*(4), 915-937.

Klapper, J. T. (1960). *The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Glencoe, IL: The Free Press.

Knobloch-Westerwick, S., & Meng, J. (2009). Looking the other way selective exposure to attitude-consistent and counterattitudinal poli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6*(3), 426-448.

Lebo, M. J., & Cassino, D. (2007). The aggregated consequences of motivated reasoning and the dynamics of partisan presidential approval. *Political Psychology*, *28*(6), 719-746.

Mendelsohn, M., & Nadeau, R. (1996). The magnification and minimization of social cleavages by the broadcast and narrowcast news medi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4), 374-389.

Muthén, L. K., & Muthén, B. O. (2007). *Mplus user's guide* (5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Mutz, D. C. (2002a). The consequences of cross-cutting network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 838-855.

Mutz, D. C. (2002b). Cross-cutting social networks: Testing democratic theory in pract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 111-126.

Mutz, D. C. (2006). How the mass media divide us. In P. S. Nivola & D. W. Brady (Eds.), *Red and blue nation?: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America' polarized politics* (Vol. 1) (pp. 223-242). Washin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Mutz, D. C., & Martin, P. S. (2001). Facilitating communication across lines of political difference: the role of mass medi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1), 97-114.

Owen, D. (1997). Talk radio and evaluations of President Clinton. *Political Communication*, *14*(3), 333-353.

Papacharissi, Z. (2002). The virtual sphere: The internet as a public sphere. *New Media & Society*, *4*(1), 9-27.

Redlawsk, D. P. (2002). Hot cognition or cool consideration?: Testing the effects of motivated reasoning on political decision making. *The Journal of Politics*, *64*(4), 1021-1044.

Rudolph, T. J. (2006). Triangulating political responsibility: The motivated formation of responsibility judgments. *Political Psychology*, *27*(1), 99-122.

Sears, D. O., & Freedman, J. L. (1967).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A critical review. *Public Opinion Quarterly*, *31*(2), 194-213.

Sigel, R. S. (1964). Effect of partisanship on the perception of political candidates. *Public Opinion Quarterly*, *28*(3), 483-496.

Slater, M. D. (2007). Reinforcing spirals: The mutual influence of media selectivity and media effects and their impact on individual behavior and social identity. *Communication Theory*, *17*(3), 281-303.

Stroud, N. J. (2007). Media effects, selective exposure, and Fahrenheit 9/11. *Political Communication*, *24*(4), 415-432.

Stroud, N. J. (2008). Media use and political predispositions: Revisiting the concept of selective exposure. *Political Behavior*, *30*(3), 341-366.

Stroud, N. J. (2010). Polarization and partisan selective exposure. *Journal of Communication*, *60*(3), 556-576.

Stroud, N. J. (2011). *Niche news: The politics of news choic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Sunstein, C. R. (2001). Rupublic.co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Taber, C. S., & Lodge, M. (2006). Motivated skepticism in the evaluation of political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3), 755-769.

Turner, J. C. (1991). *Social influence*. Belmont, CA: Thomson Brooks/Cole.

Wojcieszak, M. (2011). Deliberation and attitude polariz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61*(4), 596-617.

Wojcieszak, M., & Rojas, H. (2011). Correlates of party, ideology and issue based extremity in an era of egocentric public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6*(4), 488-507.

최초 투고일 2017년 6월 9일
게재 확정일 2017년 9월 15일
논문 수정일 2017년 9월 25일

부록

Ⅰ. 이슈별 정파적 지식 측정 문항

1. 최순실 국정 개입

1-1. 검찰 조사 결과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연설문 인사안 등 청와대 자료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서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① 이재만 ② 윤전추 ③ 정호성 ④ 조윤선 ⑤ 잘 모름

1-2.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들을 통해 재단 설립을 위해 강제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① 미르재단 ② 일해재단 ③ 블루재단 ④ 한류재단 ⑤ 잘 모름

1-3.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등 대기업을 통해 재단 설립을 위해 강제 모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중 해당 금액에 가장 가까운 답은 무엇입니까?

① 100억 원 ② 500억 원 ③ 700억 원
④ 1,000억 원 ⑤ 잘 모름

1-4. 박근혜 전 대통령에 따르면 위의 재단 설립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한류 확산 ② 체육인재 양성 ③ 국익 추구
④ 과학인재 양성 ⑤ 잘 모름

1-5.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와 관련이 있는 KD코퍼레이션이 국내의 한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은 어디입니까?

① 삼성 ② LG ③ SK ④ 현대자동차 ⑤ 잘 모름

2.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2-1. 다음 중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이 없는 정치인 혹은 정부 관계자는?

① 김기춘 ② 정호성 ③ 조윤선 ④ 김종 ⑤ 잘 모름

3-2. 블랙리스트 포함 대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세월호 등 촛불집회 참여자 ② 좌편향 문화인사

③ 〈다이닝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④ 경기도지사

⑤ 잘 모름

3. JTBC 태블릿PC 보도

3-1. 한국의 대부분 언론은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의 개통자를 누구라고 보도했습니까?

① 고영태 ② 정호성 ③ 최순실 ④ 김한수 ⑤ 잘 모름

3-2. 한국의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JTBC의 태블릿PC를 최순실 소유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① 개통 정보 ② 위치정보 ③ 태블릿PC의 사진과 연락처

④ 최순실의 인정 ⑤ 잘 모름

3-3. JTBC는 태블릿PC를 어디서 입수했다고 밝혔습니까?

① 고영태가 지급 ② 미르재단 ③ 더블루K건물

④ 밝힌 적 없다 ⑤ 잘 모름

3-4. JTBC가 최순실 최초 보도 때 화면에 사용한 PC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① 태블릿PC ② 데스크톱PC ③ 휴대전화 화면

④ 보여주지 않았다 ⑤ 잘 모름

3-5. 검찰은 JTBC의 태블릿을 증거물로 채택했습니까?

① 채택했다 ② 채택하지 않았다 ③ 잘 모름

II. 이슈별 정파적 해석 측정 문항

1. 최순실 국정 개입

다음은 최순실 국정 개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의견을 골라주세요.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④ 그저 그렇다 ⑦ 매우 동의한다)

각 사안에 대한 귀하의 해석 혹은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보낸 것은 쉬운 표현 조언을 위해 의견을 물은 것에 불과해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							
재단설립은 국가 차원에서 선의로 추진된 것이며 사익추구 목적이 아니다							
과거 대통령들도 대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기금을 모금하였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한 금액은 과거 대통령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KD코퍼레이션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한 일은 중소기업 육성 목적이다.							

2. 블랙리스트 작성

다음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주세요.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④ 그저 그렇다 ⑦ 매우 동의한다)

각 사안에 대한 귀하의 해석 혹은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어느 정부에나 있었던 일이다.							
블랙리스트는 국익(안보 등)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인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							
블랙리스트는 문화 예술인의 사상을 검열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3. JTBC 태블릿PC 보도

다음은 JTBC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주세요.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④ 그저 그렇다 ⑦매우 동의한다)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의 주인을 최순실로 보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JTBC의 태블릿PC의 입수 경위가 불투명하다							
JTBC의 태블릿P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법을 입증하는 증거물이다.							
JTBC가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해 설명을 바꾼 점에 미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bstract

Partisan Knowledge Learning or Partisan Interpretations

The Influence of Partisan Media Usage on Attitude Polarization toward Partisan Issues

Lee, Na Yeon
Assistant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Cho, YoonJung
Associate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partisan knowledge learning and partisan interpretation as played ou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san media use and attitude polarization.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artisan media use and attitude polarization toward partisan issues, only a few studies have highlighted the process by which use of partisan media leads to attitude polarization. Based on an online survey of 1,032 adults, this study measured their levels of knowledge about three partisan issues and how they interpreted those issues. Based on those measurements,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partisan media use, partisan knowledge learning, partisan interpretation, and political attitude polarization toward partisan issues.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olitical interpretation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san media use and political attitude polarization: that is, use of political media led to partisan interpretation that resulted in political attitude polarization. However, political knowledge learning was not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use of political media and attitude polarization. Specifically, use of partisan media had no relationship with partisan knowledge and partisan knowledge learning had no consistent relationship with attitude polar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artisan interpretation plays a more important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san media use and attitude polarization than partisan knowledge learning.

Keywords: partisan media use, partisan knowledge learning, partisan interpretation, political attitude polarization